

# “기본에 충실한 기록 및 관리가 돈버는 비결”

양돈연구회, 「전국양돈세미나」 성황리에 개최

한국양돈연구회(회장 김태주)는 지난 10월 18일 천안연암대에서 전국양돈세미나를 개최하여 성황리에 마쳤다. ‘양돈 수익성 증대 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 김태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돈가에 따라 울고 웃는 우리 양돈인들이 꾸준한 노력과 협력을 통해 함께 나아간다면 한국 양돈 산업이 좀 더 발전적인 모습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늘 세미나가 양돈 산업 발전에 한 발 더 다가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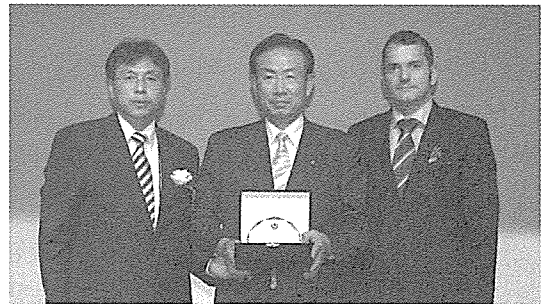
이번 세미나에서 세은축산 장치성 사장은 직접 경영하는 농장의 기록 전후 상황을 설명하며, 양돈장 경영시에 기록 및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장길 대한양돈협회 충남도협회회장도 기본에 충실한 양돈을 하자며, 돼지를 위한 전략적이고 과감한 투자와 함께 돼지를 편안하게 해 주는 것이 돈 버는 양돈의 지름길이라 하여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가야육종 오하식 전무는 ‘인력관리와 HACCP의 도입’이란 주제로 양돈장 인력 관리에 있어 경영자들이 갖춰야 할 마인드를 흥미있는 일화를 통해 설명했으며, 양돈장 HACCP 도입 상황을 들며 기록과 관리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를 위해 미국에서 초빙된 Lemmon 박사는, ‘양돈생산비의 인력 및 관리’라는 주제로 한국 양돈 산업의 현 주소를 세계 각국의 최신 자료들과 비교 설명하여 세계 양돈 속 한국의 위치를 일깨워 주었으며, 한국 양돈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지향해야 할 부분들을 세세하게 설명했다.

축산물등급판정소 김관태 강원지소장은 ‘양돈장의 숨겨진 이익찾기’라는 강의를 통해 현재 도체 등급 판정 기준을 설명하면서 돼지 출하 성적을 높이기 위해 농장 경영자들의 지식 습득과 실천이 꼭 필요하다며 강의를 마무리 했다.

## ▣ 제7회 「한국양돈대상」 시상식 개최

- 황금영 순천축협조합장(양돈협회 고문) 수상



한편, 이날 제7회 「한국양돈대상」 시상식도 거행되었는데, 순천축산업협동조합 황금영 조합장(대한양돈협회 고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황 조합장은, 농산물 수입 개방에 대응한 경쟁력을 갖춘 전업농으로서, 시설의 현대화 및 자동화 시설 추진으로 전업농가를 육성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했고, 농업인의 권익보호단체인 순천축협의 장으로서 축산인의 이익을 대변해 왔다. 협동조합 통합 이후에는 조합의 경영 내실화 및 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조합원과 축산인의 실익을 높이기 위한 사업 역량 강화에 전력을 다하는 등 지역 양돈을 위해 힘쓴 공로가 높이 인정되어, 올해의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양돈**